

(財)東亞文化研究院 地表調查報告 第16輯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변경구간 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4. 11



(財)東亞文化研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Institute

目 次

I. 조사개요.....	7
II. 역사·고고학분야의 조사.....	8
1. 창녕군의 고고학적 환경.....	8
2. 조사대상지역의 환경.....	15
3. 조사내용.....	16
III. 조사단 의견.....	17
참고문헌.....	18
圖 版.....	19

圖 面 目 次

도면 1. 조사구간 및 주변유적 위치도 (1/50,000).....	5
---------------------------------------	---

圖 版 目 次

도판 1. 공사지역 시점(남서→북동).....	21
도판 2. 억만들에서 본 공사구간 전경(남서→북동).....	21
도판 3. 억만들고분군 끝자락 공사구간 근경(북→남).....	22
도판 4. 공사구간내 민묘군1(서→동).....	22
도판 5. 공사구간내 민묘군2(서→동).....	23
도판 6. 공사지역 부근 창효각.....	23
도판 7. 공사지역 종점(북→남).....	24

I. 조사개요

우리 연구원은 (주)한국종합기술개발·(주)벽산엔지니어링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경상남도 창원군 고암면 억만리에서 중대리 일대의 국도20호선 건설공사 예정부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상기구간의 조사는 앞서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도20호선 건설공사 예정부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결과 매장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선로 변경 회신에 따른 조치로 선로 변경구간에 한정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현장조사는 창원군 고암면 억만리에서부터 중대리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고문헌조사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와 학술지를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지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 신용민(동아문화연구원 고고역사조사단장)

조사원 : 김판석(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보조원 : 김세진(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 총조사기간 : 2004. 10. 15 ~ 2004. 11. 20(착수일로부터 33일)

예비조사 : 15일

현장조사 : 3일

자료분석·정리, 보고서 작성 : 15일

■ 조사지역 : 경상남도 창원군 고암면 억만리 - 중대리 일대

■ 과업량 : L = 2.0km, B = 20.0m(4차로)

II. 역사·고고학분야의 조사

1. 창녕군의 고고학적 환경

창녕지방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라고 추정된다. 이것은 해안이나 강에서 시작된 신석기문화가 내륙으로 전파되는 단계의 유적들이 내륙지방에서 확인되고 있는 중임을 감안하고¹⁾ 실제로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마을 정수장 공사현장에서 신석기시대 패각층이 확인되어 본원에서 경상남도청에 2004년 3월 22일부로 공사중단을 요청하고 학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창녕지방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丈麻面 幽里의 支石墓(慶尙南道 記念物 第2號)²⁾를 들 수 있다. 이 지석묘는 유리마을 북서쪽의 낮은 구릉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南方式 支石墓로 탁 트인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이 지석묘는 지석묘의 입지나 上石의 규모로 보아 창녕지방의 지석묘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 원래는 주변에 7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1기만이 남아 있다. 그 밖에 靈山面 新堤里와 釜谷面 釜谷里의 지석묘군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非火伽倻이 있던 곳으로 이에 관련된 문화유적이 풍부하다. 특히 고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야시대의 고분으로는 昌寧校洞古墳群(史蹟 제80호), 昌寧松峴洞古墳群(史蹟 제81호), 桂城古墳群(慶尙南道 記念物 제3호)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梨房面, 大合面, 都泉面 등지에도 다수의 고분군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 도굴되어 원상을 보존하고 있는 고분은 거의 없다.

대형분은 昌寧邑, 桂城面, 靈山面에만 집중 분포하고 주변 지역인 南旨邑 時南里, 高岩面 兎川里, 梨房面 巨南里, 登林里, 松谷里, 遊漁面 船所里, 城山面 蓮塘里 등지에는 소형고분이 분포하고 있어 당시의 중심지역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합천 봉계리유적이나 부산 금곡동 율리유적 등을 들 수 있다.

2) 동아대학교박물관·창녕군, 『문화유적분포지도(분묘유적)』, 1998.

김재원·윤무병, 『한국지석묘연구』, 국립박물관, 1967.

유리지석묘는 유리의 서북쪽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7기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1912년 도로공사 때 대부분 파괴되고 지금은 1기만 남아 있다. 1962년 국립중앙박물관의 발굴조사로 2기의 하부구조가 확인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지석묘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A지점의 동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지점에는 원래 거대한 지석묘의 상석이 있었다고 하나 조사 당시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고 석곽형의 하부구조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이곳의 지석묘는 상석의 규모에 비하여 매장시설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1) 兎川里 上兎川古墳群(창녕읍 토천리 산 54번지)

창녕읍에서 계성면으로 가는 국도변의 토천마을 뒷산과 우진지라는 독립가옥 남쪽 야산 정상부 주위에 고분군이 위치한다. 봉토는 외형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파괴된 수혈식석곽과 개석이 산재하고 있다. 1973년 토천리 산 54번지 일대에서 고배, 배, 파배, 개 등이 수습되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중이며, 그 기형이 계성면 사리고분군의 출토 토기와 닮아 5~7세기에 걸쳐 조성된 소형 석실묘 밀집지역으로 추정된다.

2) 兎川里 鏡川(거울내)古墳群(창녕읍 토천리)

토천리 거울내부락의 뒷산 북에서 남으로 떨어지는 사면을 따라 수백기의 고분이 밀집하여 분포한다. 이곳은 민묘들이 고분을 파괴하면서 조성되어 주위에는 토기편이 널려 있다. 토기의 종류는 대형 호편이 많이 보이며 회청색토기, 회백색토기, 적갈색토기도 발견된다.

3) 上月 안지골고분군(고암면 우천리 상월마을)

상월마을의 골짜기를 따라 남쪽으로 오르면 안지소류지가 위치하며, 이 소류지의 남쪽 야산의 정상에서부터 남쪽 사면을 따라 고분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일대에는 소나무가 뺨뺨하게 들어서 있고 도굴된 고분에서 유실된 벽석과 개석들이 흩어져 있다. 고분은 대부분 도굴되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100여기는 넘는 듯하다. 또한 이 일대에서 삼국시대의 고배와 장경호, 기대 편들이 수습되고 있다.

4) 玉泉洞古墳群(창녕읍 옥천동 552번지)

이곳에서는 1978년 8월에 향아리, 합, 접시 등이 발견되어 삼국시대 고분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³⁾

3) 문화재관리국,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 1989.

“대부장경호는 정선된 점토로 고온에서 소성한 흑회색의 경질토기이다. 동부의 하반부에는 타날흔이 있으며 물레로 정면하면서 성형하였고 직선상의 견부는 하단에서 각을 이루며 견부와 구연 안쪽에서 약간의 자색 산화자연유가 남아 있다. 견부와 그 둘레의 아래에 다치구로 시문한 파상문이 있으며 견부와 구연 안쪽에 약간의 갈색 산화자연유가 남아 있다. 적색 토기합은 적갈색연질토기로 저부의 둘레를 대칼로 깎아낸 자국이 남아 있다. 위쪽은 물레로 성형하였고 깎기수법이 나타난 상단의 내면은 약간 도드라져 그 부위의 두께가 두껍다. 뚜껑받이는 내경하고 뚜껑받이 턱은 끝이 약간 들리고 뺨쪽하다. 유개고배의 뚜껑은 거친 사질태토로 회청색경질토기로 물레성형이다. 꼭지는 바라진 굽 모양으로 중간에 1조의 돌대가 있고 투공은 없다. 꼭지를 중심으로 2개의 원을 그어 문양 공간을 구획하고

5) 牛川里古墳群(고암면 우천리)

우천리 소내부락과 상월부락 사이에 위치한 야산 서남쪽 계곡에 약 30여기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굴되었다. 이곳에는 이미 도굴된 고분의 벽석과 개석들이 흩어져 있는데 석곽은 점판암을 평적한 수혈식으로 4~5단 정도 쌓아 올린 장방형의 석곽이고 개석을 덮었으며, 크기는 200×80~90cm 정도이다. 보통 창녕지방의 고분들이 6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횡구식 또는 횡혈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이 고분군은 그보다 1, 2세기 정도 앞서는 시기에 조성되었다.

이 고분군은 상월 안지굴 고분군과 연결되어 동쪽사면을 따라 조성된 것이므로 그 축조수법이나 수습되는 토기의 양상도 동일하다. 한편 우천리에서는 1970년 3월 26일에 대부장경호, 원저호, 파수부완, 이부평저호 각 1점씩과 유개고배 10점이 출토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6) 合理古墳群(대합면 합리 산 2번지)

달성군과 경계지역에 가까운 합곡마을 전면의 낮은 야산 정상부에 등림리를 지나 합리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저수지가 나오는데 고분군은 이 저수지의 북쪽에 위치한 야산의 구릉에 입지한다. 이 야산은 구마고속도로에 의하여 갈라져 있는데 야산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남쪽 사면을 따라 산재한다. 서쪽의 야산에는 석곽과 석관이 혼재하는데 석재는 이곳에서 많이 보이는 점판암을 이용하였으며 구릉의 끝자락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수의 토기편이 보이고 있다. 합리고분군은 외형상으로 확인되는 봉토는 없고 대부분 도굴되었다. 도굴로 드러난 석곽의 크기는 320×90×30cm, 장축은 동-서방향이며 석실의 크기는 260×260×50cm의 방형으로 입구는 남쪽으로 내었으며 활석을 이용하여 막고 다시 그 위에 판석으로 막음하였다. 동쪽의 야산에도 높이 250cm, 저경 지름 800cm 이상의 대형 봉분을 가진 것이 남아 있으나 모두 도굴되었다.

7) 巨南里 九鶴마을고분군(이방면 거남리 산 4번지)

이방면 거남리 937번지에서 11월 26일 저수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제 이식 1점, 유리제 목걸이 1식, 고배 4점, 고배개 4점, 완 1점 등이 출토되어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⁴⁾.

두 원 사이에 9치의 거치문, 바깥 원에 접해 17개의 반점문을 시문하였다. 고배는 고운 사질테토의 회청색 경질 토기로 물레성형한 것이다.”

4) 문화재관리국,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 1989.

“고배는 회흑색경질토기로서 1단 투창의 대족이 달린 유개고배이다. 대족에는 장방형의 투창이 4개

이 고분군은 이방면 거남리 구학마을 저수지 남쪽에서 북에서 남으로 뻗은 야산의 구릉을 따라 분포한다. 고분군이 위치하는 주위는 이미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이곳에서 다수의 일단 사각투창을 가진 회청색 고배편과 적갈색 파수편 그리고 개배편 등이 수습되었다.

8) 船所里古墳群(유어면 선소리)

선소마을은 남북으로 뻗은 2개의 구릉사이에 위치하며, 이 두 구릉의 사면에 고분의 봉분이 남아 있으나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다. 이곳에서는 다수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모두 片으로 삼국시대 토기의 특징을 가진 것이다. 한편 1972년 3월 선소리에서는 적색소호, 발, 개, 고배가 각 1점씩 출토되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9) 桂城古墳群(계성면 계남리, 사리일대)

이 유적은 계성면 소재지 남쪽의 계성천을 낀 영축산에서 서북으로 뻗은 지맥의 서북의 기슭인 계남리와 사리의 구릉 위에 분포해 있으며 이곳 계남리와 사리 일대의 고분을 총칭하여 계성고분군이라고 한다. 이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1967년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시굴된 바 있으며 1968년과 1969년 2차에 걸쳐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당시 조사에서 이 고분군은 6세기의 가야고분으로 확인되었으며 1991년에 『昌寧桂城古墳群』⁵⁾이라는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는 대구~마산간 고속도로 건설시 이 유적을 다시 조사한 바 있는데 이것은 『昌寧桂城古墳發掘調査報告』로 발간되었다.⁶⁾

영남대 박물관에서 조사한 것은 계남리의 대형고분으로서 현실은 천석으로 축조한 횡혈식석실로 그 위 봉토는 냇돌과 흙으로 덮여 축조하였는데 星形처럼 12개의 가지를 가진 모습으로 덮고 그 위에 다시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

각 등간격으로 나 있다. 배에는 짧은 뚜껑받이 턱과 내경하는 뚜껑받이가 있으며 무늬는 없다. 고배개는 대족형태이며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투창이 3개 있다. 개신에는 5~6줄의 세침선으로 2단의 문양대를 구획하고 그 안에 짧은 점열문을 방사상으로 찍었다. 개신끝을 약간 뾰족하게 하여 만든 짧은 드림턱이 있으며 그 아래로 약간 내만하는 짧은 드림이 있다. 그리고 유리경식은 크기는 다양하지만 모양은 대체로 구형이 많고 편구형, 고휘도 있다. 색깔은 주로 청색과 남색으로 삼국시대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질이다. 금제이식은 주환인 세환과 화룡형의 중간식, 심엽형의 미식으로 된 전형적인 신라식의 세환이식이다. 세환은 동심금제이며 얇은 금판을 가로 잘라 안의 환을 싸고 붙였다. 중간식은 세환 10개를 연결시켜 만든 투조형 구와 세환 5개를 톱니처럼 각 한 고리에 연결시킨 반구체로 되어 있다. 미식은 편평한 심엽형의 얇은 금판이다. 그리고 유대장경호 1점은 경부에 파상문이 있는 것으로 높이 12cm이고 각각의 높이가 5.5cm, 6.6cm이고 구경이 8.2cm, 10.6cm인 평저소호 2점이다.”

5) 이은창 외, 『창녕 계성리 고분군』,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6) 『昌寧 桂城古墳群 發掘試掘調査報告』,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된 유물은 고배, 유대장경호 등의 토기류와 철제의 무구류, 농공구류 등과 금·은제의 장신구로 이 지역 고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1976년 대구~마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조사된 고분군은 대부분 사리지역의 고분군으로서 조사결과 유구는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그리고 옹관묘가 혼재하고 있었으며 부장품은 무구류가 거의 없고 가야식 고배도 전혀 없는 신라 색채가 강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유물로 보아 이 고분군은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지역 대부분의 고분도 창녕지방이 신라영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 계성고분군에 대하여 1993년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어 1994년에 『昌寧 桂城古墳群』보고서가 출간되었고, 1998~1999년에 걸쳐 호암미술관과 경남고고학연구소에 의해 발굴이 실시되어 2000년에 호암미술관에서 『昌寧桂城古墳群』이 출간된 바 있고,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昌寧 桂城新羅古塚群』⁷⁾이 출간된 바 있다.

10) 竹絲里古墳群(영산면 죽사리)

동리고분군에서 동남쪽으로 약 1km정도 떨어진 영산-부곡간 도로 맞은편에 있는 작은 구릉 위에 남아 있는 고분군으로 현재 3기가 복원되어 있다. 주변에는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수의 토기편이 발견된다. 이로 보아 현재의 경작지도 이전에는 고분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講里古墳群(장마면 강리)

장마초등학교 뒷산에 위치하며 남쪽 사면의 경작지에도 무수한 토기편이 발견되는데 야산의 구릉에 고분의 봉분이 산재하고 있다. 봉분들은 많이 삭평되어 흔적만을 남기고 있지만 고분의 분포상태로 보아 이곳에서 가장 큰 봉분의 크기도 그다지 대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습된 토기편은 타날문 단경호편과 파수가 있다. 그리고 장마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지을 때 출토되었던 2단의 사각형 투창을 가진 고배를 보관중이며 1972년 7월 22일 강리 898번지에서 철검, 철부, 철창 각 1점이 발견되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7) 호암미술관의 창녕계성고분Ⅱ·Ⅵ지구 조사결과 횡구식석실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석관묘, 민묘 등 총 50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로는 유개고배, 유대완, 유대장경호, 장경호, 단경호, 연질소호 등과 명문토기가 있고, 철기로는 철부, 소도자, 철촉, 철검, 철검, 꺾쇠, 이형철기 등이며 장신구로는 금제태환·세환이식을 비롯하여 금동제세환이식, 유리구슬, 은제과대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야산의 정상부에 위치한 Ⅱ지구 1호분 석실 내에서는 도굴로 많은 유물이 사라지긴 하였지만 태환이식 1쌍을 비롯하여 경식, 팔찌, 세환이식, 은제과대장신구, 유리제장식, 은제모자소도자, 유리제팔찌장식 등의 화려한 장신구를 비롯하여 각종 철기와 토기 등이 출토되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많은 유물이 출토된 1호분은 이전 복원하기로 하고 현재 창녕박물관에 원형등으로 전시중이다.

12) 校洞古墳群(창녕읍 교리)

교동고분군(사적 제80호)은 지금의 창녕박물관이 위치하는 바로 그 일대에 해당되는데 약 150여기가 분포하고 있었으나 도굴 등으로 대부분이 파괴되고 일부가 복원·정비되어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창녕군 교리 129번지에 위치한다. 이 고분군은 읍의 동쪽 목마산의 산록 송현리 구릉에서부터 읍의 북쪽 교리 고지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 중 교리 산 5번지에는 원래 왕릉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고분(校理 제7호, 今西 제22호)을 중심으로 주위에 대소 70여기의 고분들이 모여 있었으나 봉토의 파손이 심하다.

1918년 교동(A群) 제5·6·7·8·9·10·11·12·21·31호분과 송현동(B群) 제89·91호분이 발굴되어 마차 20대분, 화차 2량분 등 수많은 유물과 부장품이 출토되었는데,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고 출토유물의 일부는 행방이 애매한 것도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별도로 발굴되어 그 결과가 1918년 고적조사보고서로 발표되었던 제 21·31호분(梅原末治, 浜田耕作 발굴)은 창녕고분에 대한 유일한 조사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당시 석실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관대 위의 인골을 비롯하여 안쪽에서는 주로 토기가 출토되었고, 그 외에 금속제 장신구, 옥류, 철제품 등이다. 토기로는 장경호, 개배, 대부완, 유개대부완 등이 있다. 금속제 장신구는 순금제 이식, 철지은장환이 출토되었고, 옥류로는 관옥, 소옥이 출토되었다. 철제품으로는 도자, 철창, 장방형 금구 및 동과편 10여점 등이다. 교동고분은 제 12호분이 경주의 신라고분과 같은 적석목곽분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야식인 장방형의 횡구식석실이고 부장품도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 특히 제 7·11호분은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창녕고분의 대대적인 발굴은 그 결과처리의 잘못으로 도굴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가야시대 보고는 일시에 파멸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도굴된 유물들은 대구지방 상인들의 손을 거쳐 일본으로 유출되어, 민족문화유산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

교동고분군은 그 일부가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굴조사되어 이 지역 고분군의 성격을 밝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발굴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横口式石室로 봉토는 작업구역을 분할하여 類似版築하면서 주변에 護石을 둘렀고 호석 바깥에는 판축시 사용된 柱穴이 있다. 주혈 2~4개가 直線狀을 띠는 것은 고분의 평면이 원이 아니고 다각형임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것은 분할되어 나타나는 작업구간과도 일치하고 있어서 주혈이 봉토작업과정과 연관함을 보여준다. 석실의 내부는 모두 횡구식으로 1·2·3호분은 입구에 墓道가 달린 것이며 3호분의 묘도는 610cm나 된다. 석실은 완만한 경사면에 축조되고 있으며 석실은 半地下式과 地下式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반지하식이 선행하는 것이다.

13) 松峴洞古墳群(창녕읍 송현리)

송현동고분군은 창녕읍 내의 동쪽에 위치하는 화왕산의 서편 산록에 위치하며 교동고분군(사적 제80호)의 인근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고분군(사적 제81호)이다. 2000년 5월과 6월에 걸쳐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된 정밀지표조사⁸⁾를 통하여 대략 5세기대에 조성된 약 17기의 봉토분이 목마산성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해발 145~185m)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송현동고분군은 교동고분군과 함께 창녕지역 지배집단의 묘역으로 추정되는 봉분 직경이 20m 이상의 대형고분군을 비롯하여 중·소형고분군이 함께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도굴과 경작 등으로 인해 봉토의 원형을 파악할 수 없게 되거나 훼손된 상태이다.

그리고 2001년 12월에서 2002년 4월에 걸쳐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2호에서 7호분까지의 복원정비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복원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 조사결과 6기의 고분은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평지나 경사면에 축조되었으며 호석을 두른 직경 22m 전후의 평면 원형의 봉토분이며 매장주체부는 평면이 장방형인 횡구식석실묘로 횡구부는 단벽 전체를 폐쇄하였으며 교동고분군에서와 같이 긴 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4~7호분 석실의 경우 개석 상부를 할석을 이용하여 반원상으로 쌓고 점토를 발라 마무리하는 창녕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송현동고분군은 인근에 조사된 교동고분군과 비교하여 연대나 성격이 유사한 횡구식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창녕지역 지배집단의 묘역으로 추정된다.⁹⁾

고분과 관련하여 분포를 같이 하고 있는 성지로 창녕읍 교동, 송현동고분 주변인 화왕산에 축조된 火王山城(사적 제64호)과 牧馬山城(사적 제65호), 桂城面 舍里·桂南里 고분 주변에 神堂山城이 있다. 또한 靈山面 東里, 竹絲里 고분 주변에는 靈鷲山城이 있고 城山面 蓮塘里 고분 주변에 玉嶺山城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군사상의 요충지로 신라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군내에 신라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國家指定文化財(國寶 2, 寶物 9, 史蹟 5, 重要民俗資料 2, 重要無形文化財 2) 20점, 道指定文化財(有形文化財 15, 記念物 6, 民俗資料 1) 22점과 文化財資料 22점 등이 있다.

창녕에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은데 國寶로 昌寧述亭里東三層石塔(제34호)¹⁰⁾이 있고, 寶物로는 昌寧松峴洞石佛坐像(제75호)¹¹⁾, 觀龍寺藥師殿(제146호)¹²⁾, 觀龍

8) 정의도 외, 『昌寧松峴洞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學術調査研究叢書 第6輯, 慶南文化財研究所, 2000.

9) 「昌寧松峴洞古墳群 試掘調査結果略報告書」, 경남문화재연구원, 2002. 06.

10) 동삼층탑은 술정리 120번지에 있으며 국보 345호이고 서삼층탑은 술정리 309번지에 있는데 보물 520호이다.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이며 술정리 주위에 신라사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송현동 105번지에 있는 마애불로 보물 제75호이다.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며 높이 1.37m이다.

寺大雄殿(제212호)¹³⁾, 觀龍寺龍船臺石造釋迦如來坐像(제295호)¹⁴⁾, 觀龍寺石造如來坐像(제519호)¹⁵⁾, 述亭里西三層石塔(제520호) 등이 있다. 그 밖에 昌寧塔金堂治成文記碑(제227호)가 있는데 비문에는 仁陽寺와 관련이 있는 여러 寺內의 梵鐘, 塔, 金堂, 寮舍의 造成緣起와 食給을 기록한 佛敎造成記로서 특수한 뜻을 가지는 비이다.

이외에도 昌寧鄉校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孝宗 때에 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그리고 靈山 萬年橋¹⁶⁾는 보물 제564호로 자연암반석 위에 臺石을 정치하고 扁單石을 올려 반원의 虹霓를 구축하였는데 건립연대는 乾隆 45년(正祖 4年, 1780)이다. 또한 石水庫는 창녕읍과 영산면¹⁷⁾에 있는데 昌寧石水庫¹⁸⁾는 붕토가 거의 완전한 것으로 외부의 형태가 거대한 고분처럼 보이며 경주나 안동의 석빙고와 동일한 구조로서 영조 18년에 축조된 보물 제310호이다.

2. 조사대상지역의 환경

창녕군은 조선후기의 창녕현과 영산현이 합쳐서 하나가 된 곳이다. 창녕현은 1895년 개편 때 대구부 관할 2등 군의 하나인 창녕군으로, 영산현은 대구부 관할 4등 군의 하나인 영산군으로 되었다가, 1896년 개편 때 비로소 창녕군은 경상남도 관할 3등 군의 하나인 창녕군으로, 영산군은 4등 군의 하나인 영산군으로 되었다.¹⁹⁾

금번 조사대상지역인 고암면은 창녕군의 동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4.48 km²이며, 면 소재지는 중대리이다. 동으로는 산악을 경계로 밀양시와 청도면, 서북으

12) 조선시대의 목조건축물로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층맞배기와집이다.

13)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인 다포식 건물로 처마는 겹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지붕 형태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1401년에 창건하였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7년과 1618년에 중창하였다. 그 뒤 1749년에 다시 중창하였는데 상기의 상량문은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14) 옥천리 촌 9번지 야산 정상부에 위치한 화강암제 좌불로 보물 제295호이다. 통일신라시대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불고 1.88m, 대좌고 1.36m이다.

15) 관룡사 약사전에 봉안된 고려시대의 석불좌상으로 높이 1.1m이다. 각 부의 신체의 비례가 맞지 않아 어색한 점이나, 얼굴, 신체, 옷주름, 대좌 등에서 고려불상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려 후기의 조각양식을 대변할 수 있는 불상이라 할 수 있다.

16) 석공 白進己가 축조하였다고 하며 홍예를 이룬 부채꼴의 화강석을 이용한 3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다란 長臺石을 올리지 않고 둥근 자연석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위에는 흙을 깔았다. 홍예의 너비는 11m, 높이 5m, 홍예 교폭은 4.5m이다.

17) 사적 제169호로 영산면 校理에 위치한다. 빙실의 길이 10m, 높이 3.35m이다. 『輿地圖書』에는 縣監 尹彝逸이 創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18) 창녕읍 송현리 소재 조선시대의 석빙고이다. 입구 옆에 석빙고비가 있는데 이 비문에 의하면, 縣監 申候曙 등이 英祖 18년(142)에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빙실길이 11m, 너비 3.6m, 홍예높이 3.7m.

19)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1997.

로는 대합·대지·성산면, 남으로는 창녕읍과 접하고 있다. 본래부터 창녕군의 지역으로서 예로부터 바위가 많아 고암면이라고 하였다. 화왕산의 북쪽에 北角峰이 있어 계곡이 깊다. 고암면과 성산면 사이에 방골재(258m)·산영재·감골재 등의 고개가 있다. 평지로는 어물리들이 있다. 국도 20·24호와 군도 18·19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생활권은 인접한 창녕읍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통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애향과 승문의 고장이다. 신라시대 때 下州의 일부에 속하였으며, 고려시대 太祖朝에 창녕군의 일부에 속하였다. 그리고 顯宗 때는 密城郡(지금의 밀양시)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 太祖朝에 창녕군에 편입되면서 서부 지역은 대암면, 동부지역은 월미면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암면과 월미면을 통합하여 지금의 이름인 고암면이 되었다. 中大·億萬·元村·大巖·澗上·牛川·桂上·甘里 등 8개 동리가 있다. 읍내면(창녕현과 영산현)은 지금 사라지고 없는 이름이며, 고암면은 지속적으로 전승된 이름이다. 그리고 창녕읍은 새로 생겨 지속되는 이름이다.

3. 조사내용

금번 조사구간은 북쪽으로 토평천이 흐르고 그 남쪽아래로 넓은 충적평야지대인 억만들이 펼쳐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해발 60~80m에 이르는 낮으막한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 지형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당초 국도 20호선 확·포장공사의 선로계획구간은 삼국시대고분군과 함께 노거수 및 추정지석묘 등 중요한 유적을 관통하거나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노선 변경안의 시점은 창녕군 창녕읍 하리 청학마을의 마을 앞들 지점인 창녕군 농산물수출영농회 창고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암면 중대리 중대천 교각지점까지이다. 현재 억만들의 충적평야지대는 대부분 벼수확이 완료되고 마늘 파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에 농작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었다.

변경 노선구간은 당초 조사하였던 억만리고분군과는 상당히 이격하여 노선 설계된 상태이므로 당 공사로 인한 해당 매장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계구간과 그 주변에는 연고무덤으로 확인되는 현대 민묘군이 두군데가 확인되어 이장조치가 요망된다.

그리고, 변경 노선구간과 100m 정도 이격된 곳인 괴산마을 근처의 평야부근에 ‘창효각(彰孝閣)’이라는 판각명이 새겨진 1959년(단기4292년)에 건립된 효자 金迭哲 각이 세워져 있다. 노선과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지만 도로개설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마을 주민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조사단 의견

이상 국도20호선 창녕-고암구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고암면 억만리에서 중대리에 이르는 총연장 2km의 변경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와 문헌자료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토평천을 끼고 형성된 비옥한 충적평야지대의 남쪽지점에 해당되며 해발 60~80m의 나지막한 구릉 하단부에 해당된다.

당초 중요문화재를 관통하던 노선구간과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변경 노선구간에는 별다른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상기 구간으로 공사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공사 진행중에 지표조사상에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의도 외, 『昌寧松峴洞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學術調査研究叢書 第6輯, 慶南文化財研究所, 2000.
- 동아대학교박물관·창녕군, 『文化遺蹟分布地圖(墳墓遺蹟)』, 1998.
- 김재원·윤무병, 『한국지석묘연구』, 국립박물관, 1967.
- 문화재관리국,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 1989.
- 이은창 외, 『창녕 계성리 고분군』,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 영남대학교박물관, 『昌寧 桂城古墳群 發掘試掘調報査告』, 1991.
- 경남문화재연구원, 『昌寧松峴洞古墳群 試掘調査結果略報告書』, 2002. 6.
-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1997.

圖 版



도판 1. 공사지역 시점(남서→북동)



도판 2. 억만들에서 본 공사구간 전경(남서→북동)



도판 3. 억만들고분군 끝자락 공사구간 근경(북→남)



도판 4. 공사구간내 민묘군1(서→동)



도판 5. 공사구간내 민묘군2(서→동)



도판 6. 공사지역 부근 창효각



사진 7. 공사지역 종점(북→남)

(財)東亞文化研究院 地表調査報告 第16輯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변경구간 내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4년 11월 17일

발 행 일 / 2004년 11월 20일

編輯·發行 / (財)東亞文化研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201호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
